백두산2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주체91(2002)년 5월 29일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운 항일여성투사들

최희숙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운 항일여성투사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 후방도 없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침략자들과 피의 혈전을 벌여야했던 지난 항일무장투쟁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이 혈전에서 수많은 여성투사들이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항일투쟁사에 빛날 위훈을 세웠습니다.

원래 혁명은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유한 사회적 본성인 자주성을 실현하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해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신념에 따라 나서는 길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투쟁은 그것이 설사 어렵고 험난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보람찬 위업이며 그 길에서 한번 다진 맹세 변치 않는 여기에 혁명가의 참다운 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여성투사들은 이런 진리를 심장에 가슴 깊이 새기고 싸웠습니다.

그런 여성투사들중에는 최희숙동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1940년 8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관한 노선을 제시한 소할바령회의후 소부대공작에 참가했다가 일제의 만산토벌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만산토벌이란 빗으로 훑듯이 온 산판을 샅샅이 뒤지는 토벌전술인데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을 사로잡으려고 이런 전술까지 썼습니다.

최희숙동지를 체포한 적들은 비밀을 뽑아내려고 그에게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문과 위협도 최희숙동지의 송죽같은 절개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제 교형리들은 최희숙동지의 두눈까지 뽑았습니다.

일제교형리들에게 두눈을 빼앗겼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그의 이 불같은 외침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적들은 이번에는 최희숙동지의 심장까지 도려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보자는 것이였습니다.

혁명가의 심장이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장에는 혁명가의 표시도 없고 반역자의 표시도 없습니다. 다만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동지들을 위해 고동친다면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고동칠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 혁명동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절개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낸 여성투사들중에는 안순화동지도 있습니다.

안순화동지는 1938년 봄에 밀영으로 갑자기 들려든 일제 토벌대에 의해 불행하게도 체포됐습니다. 적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행방과 식량창고, 탄약창고 그리고 약품창고의 위치를 대라면서 안순화동지를 악착하게 고문했습니다.

토벌대 대장놈은 승산도 없는 싸움에 피를 바치고 청춘을 바치는게 아깝지 않느냐면서 달콤한 말로 그를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안순화동지

만일 그때 안순화동지가 적들의 고문이 두려워 그들의 물음에 고분고분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제침략자들은 귀순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이른바 우대하는 방법으로 혁명대오를 와해시키려고 책동했습니다. 귀순신청서에 보증인을 밝히고 손도장이나 찍으면 어제날까지 타도일제를 부르짖던 사람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순화동지는 그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제놈들은 처음에는 그는 발길로 차고 짓뭉개다가 머리칼을 마구 잡아뜯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안순화동지가 완강하게 저항해나선다고 해서 그의 가슴과 배에 참나무말뚝을 박았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진데 육중한 나무말뚝이 살과 뼈를 문지르며 육신에 깊숙이 박혔으니 안순화동지가 당한 고통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그가 마지막 힘을 모아 외친 것은 ≪조선혁명만세!≫, ≪여성해방만세!≫였습니다.

리계순이 남긴 달비

항일투사 이계순동지도 빛나는 최후로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투사들중의 한사람이였습니다.

그는 항일유격대생활을 하는 과정에 동상을 입게 돼서 후방밀영으로 후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체포돼서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장백현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계순동지를 체포한 일제놈들은 그를 총살했습니다.

이계순동지가 총살당하는 날은 장날이였습니다.

일제놈들은 그날 전향한 공산군여자의 반성연설이 있다고 광고를 내면서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혜산쪽에서 넘어오는 장사군들도 모조리 그 운동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계순동지가 무엇때문에 주민들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적들에게 요구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인민들과의 이별을 반일선전으로 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성연설을 몇마디하면 적들은 그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계순동지는 그런 비굴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총칼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계순동지는 나는 비록 죽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며 사령관동지도 건재해 계신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 않아 온다, 모두다 일치단결해서 적의 폭압을 박차고 반일항전에 떨쳐일어나자는 내용으로 연설했습니다.

인간은 역경에서 그 진가를 가늠케 됩니다.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가 참다운 혁명가인가 아닌가를 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명성을 날리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한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이계순동지처럼 인생의 끝을 쇠소리나게 맺는 사람이 참된 혁명가입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북만주에서 싸운 여투사들도 혁명절개를 잘 지켰습니다.

한주애동지의 사례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딸과 함께 일제놈들에게 붙잡힌 그는 몇달동안 철창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들은 어머니와 딸이 한 감방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호강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들 모녀를 따로따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주애동지의 마음을 굽히기 위해 이따금씩 그와 딸을 데려다가 면회도 시켰습니다. 모성애를 역이용하려는 심보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서도 한주애동지의 지조를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북만에는 목단강의 8열녀로 불리우는 여투사들도 있는데 당시 북만주일대에서 활동한 안순복, 이봉선을 비롯한 여덟명의 재봉대원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달려드는 적들과 생사결단의 싸움을 벌이다가 사로잡힐 곳에 이르자 목단강의 깊은 물에 꽃같은 몸들을 담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북만의 여대원들속에도 있었는데 그때 일곱명의 여대원들이 내도산으로 가던 도중 적들의 포위에 들자 푸르허강물에 뛰어들어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항일투쟁사는 자기의 신성한 페이지위에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운 수많은 여성투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여성들이 이같은 영웅투사적 위훈을 세울 수 있은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 티없는 양심과 혁명적 의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항일의 여성투사들은 자기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나라와 민족, 민중을 위한 길에서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운 항일여성투사들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고록에서 배운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1일~24일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운 항일여성투사들
-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과 의지
- 사상문화생활
- 사회의 성격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과 의지

류경수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항일투쟁시기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한데서 필연됐습니다.

항일투사 류경수동지는 **김일성**주석님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일성**주석님의 명령을 집행하는데서 맹세나 약속을 번지르르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 맹세나 약속은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곳은 사령관동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우리는 조국의 광복도 이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류경수동지가 일상적으로 간직하고 있던 신념이였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김일성**주석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훌륭히 집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41년 이른 봄이였습니다.

그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만주 각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류경수동지의 중대를 데리고 백두산일대에 나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총구라는 곳에 사령부자리를 정하시고 류경수동지에게 중국 동북지방의 화전현 노금창에 있는 연락지점에 가서 항일투사 위증민동지를 만나고 오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몇십겹을 헤아리는 적의 보초들과 봉쇄구역들을 뚫고 가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류경수동지는 노금창으로 2명의 항일유격대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류경수동지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총구는 온통 적들의 불무지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던 사령부가 천막을 치고 있던 자리에서도 여러개의 불무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한 마지막 시간까지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밤 한총구에 펼쳐진 불바다를 보고서는 사령부가 건재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류경수동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없다. 이 30분동안에 우리가 저 불무지가 있는 사령부자리까지 가지 못하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위험속에서도 우리 세사람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원들을 고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산봉우리에 남겨두고 사령부의 천막자리를 향해 주저없이 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근처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떨궈두고온 대원을 만났습니다.

류경수동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령부자리부터 어김없이 찾을 것이라는 **김일성**주석님의 확신과 정황이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자기 사령관이 소조를 파견한 출발지에서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부하들을 기다릴 것이라는 류경수동지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던 겁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정해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털끝만한 편차도 없이 엄수하려는 류경수동지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철저한 집행정신은 자기 사령관은 어떤 정황에서나 대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사령관의 신임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고통도 각오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리심에서 비롯된 것이였습니다.

마동희동지

이런 신념과 의리심, 굳센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류경수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일성**주석님을 위해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항일투사들은 또한 어떤 어려운 역경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도전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려운 변혁운동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신념을 신념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동반자, 보호자가 바로 의지입니다.

신념과 의지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으며 약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신념과 의지인 겁니다.

역사적 경험은 변혁운동가들과 활동가들의 신념과 의지에 변질이 생길 때 그 변혁운동은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운동가들은 그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용감히 싸운 항일투사들중에는 마동희동지도 있습니다.

1937년 적들은 백두산지구에 뿌려진 지하투쟁조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와 노선에 충실한 항일투사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처형했는데 이것을 일명 ≪혜산사건≫이라고 합니다.

≪혜산사건≫이 터졌을 때 마동희동지는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피신중에 있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성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통해 투쟁조직들에 피해정형을 요해장악하며 파괴된 투쟁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조선민족해방동맹 성원들의 행방을 찾아 갑산군 일대의 산간부락들을 차례로 훑어나가던 마동희동지는 남흥동에서 산능지도구 서기로 일하는 김태선이라는 자의 밀고로 그만 적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마동희동지를 체포한 적들은 그에게 갖은 고문을 다 들이댔습니다.

사실 그때 마동희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위치는 물론 투쟁조직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들이대는 악착스러운 고문과 위협으로 마동희동지는 의식을 잃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마동희동지는 투쟁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혀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했던 겁니다.

사실 사람이 마동희동지처럼 자기의 혀를 스스로 끊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각오는 살아서 역적으로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된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동희동지의 이같은 용기와 희생성은 신념이 강한데서 나온 것이였고 또 그런 용기와 희생성은 그 어떤 고문이나 위협으로써도 거세할 수 없는 무쇠같은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마동희동지는 자기가 비밀을 지키면 투쟁조직은 건재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온갖 고문을 다 들이대는 철창안에서도 혁명가로써의 신념을 굳센 의지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신념은 자기가 숭상하는 이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그 이념을 위해서라면 굶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을 때 공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계급, 자기 민중의 힘에 대한 확신이며 자체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체질화된 신념을 지녔다고 하는 겁니다.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신념과 의지는 바로 그런 신념, 그런 의지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역사와 후세에 기리 살아 빛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고록에서 배운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사상문화생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상문화생활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상문화생활은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생활을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 나갈 걸 요구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적 인간을 키우며 사상문화적 재부를 향유하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정신육체적으로 키우며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상문화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창조적인 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면 그건 사람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직접 이바지하는 정신문화를 말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은 정신적 재부이며 사람에게 직접 체현되어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데 작용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상도 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사상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의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사회생활의 특수한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문화와 구별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그저 문화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상문화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상문화생활에는 사람들이 자주적인 변혁사상으로 정신무장하기 위한 사상생활과 함께 인류의 진보적인 문화유산을 체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 교육활동,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게 육체를 키우고 단련하는 보건체육활동,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활동 등이 속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마련된 정신문화적 재부를 이용하며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사상문화생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상문화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인간의 본성에 걸맞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게 하는 사회생활분야입니다. 사상문화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상의식과 세계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기기 위한 창조적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갑니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갖출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문화생활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로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사상과 도덕, 과학과 같은 정신적 재부를 습득하여 자기의 사상문화생활을 높이는 생활이 바로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춘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상문화생활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민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올바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역사의 반동들에게는 자주의식으로 각성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인간은 저들에게 순종하면서 물질적 부만을 생산하는 노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과 역사의 반동들은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하는 민중의 사상문화적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로하는 민중을 사상적으로 타락케하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기형화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로하는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해 반동적이며 반민중적인 각양각색의 사상과 문화, 부패타락한 부르조아생활양식을 악랄하게 유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상문화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고 있으며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 호화방탕한 생활이 유포되어 사람들은 정신적 및 육체적 불구자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걸맞게 진행됩니다.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민중은 사상생활을 통해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정신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민중은 자기 자신을 사상적으로 정신무장하게 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민중 전체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집해 온 사회의 사상적 일체화를 성공리에 실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상문화생활은 교육, 보건을 비롯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문화제도의 혜택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갑니다. 결국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춘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상문화생활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상문화생활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것이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해 가는 사회생활분야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요구합니다. 풍부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가지려는 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화정서를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날수록,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걱정을 모르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다양해집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하게 할걸 요구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런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 문화정서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문화정서생활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지며 유쾌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게 하는 자주적 인간만이 누리는 참다운 생활입니다. 이런 문화정서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정서생활이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참다운 문화정서생활도 역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정서생활과 관련되는 문학과 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가 민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로해서 모든 문화가 대중화, 생활화됩니다. 하기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체 민중이 누구나 다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웁니다. 이로인해 사람들은 너나없이 모두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정신육체적 불구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문화정서생활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한게 아니라 온갖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판을 치는 문화정서의 불모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중의 문화정서적 요구는 무참히 유린당하고 문화정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소수 특권층의 요구와 돈벌이수단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상문화생활은 우선 경제발전과 정치생활을 담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은 다같이 사람의 활동인 만큼 사람이 어떻게 힘있는 존재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발전이 좌우됩니다. 사상문화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민중이어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힘있는 존재로 준비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노동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해서 더많은 물질적 재부를 창조해서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경제생활, 정치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또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민중의 융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게 합니다. 사상생활을 통해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해야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조들을 배격하며 민족허무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변혁투쟁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생활을 통해 근로하는 민중의 문화수준,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또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자기의 힘과 기술로 국가와 사회를 올바로 관리운영하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문화생활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며 사상문화영역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민중을 위한 완성된 생활방식인 겁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은 이 땅에 난무하는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과 왜색외풍, 서방의 사상문화적 침습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우리 민중이 참다운 사상문화생활을 누리는 통일조국을 앞당겨와야 할줄 압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의강좌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4일~25일

사회의 성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체사관이 밝힌 사회의 성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사관은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사회의 본질과 함께 사회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본질이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특징에 관한 문제라면 사회의 성격은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성격을 올바로 밝히는 건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각이한 사회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확립하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됩니다.

그러면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사회의 성격이란 한마디로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발전의 매단계마다 상호구별되는 사회계급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회의 성격은 어떤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이냐 하는데서 표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성격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는 해당사회에서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이 현실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건 사람이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는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이용되고 사람에 의해 개조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 때에 어떤 성격의 사회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는 건 해당 사회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걸맞게 사회관계를 부단히 해결해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선진적인 사회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걸 맺고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사람인 것으로해서 사람이 사회관계의 주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고해서, 구체적으로는 사회관계의 주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에서나 모든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회를 이루는 모든 계급, 모든 사회적 집단이 다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계급들, 사회적 집단들이 지위에서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해서 상호대립되고 투쟁하게 되는 겁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겪게 되는 계급들사이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따라서 착취계급사회의 역사는 오랫동안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지배계급,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피압박, 피착취계급의 투쟁의 역사로 특징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류역사는 지배계급,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에 의해 착취계급사회가 교체되고 발전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제사회로부터 봉건사회 그리고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의 주체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전까지는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착취계급사회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지배구조와 민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형태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민중의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민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됩니다. 결국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이 해당 사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구분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사회의 발전수준은 생산력의 발전수준, 물질문화적 재부의 발전정도에 의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어느 한 측면의 발전수준을 보여줄 뿐입니다. 같은 성격의 사회라도 생산력의 발전수준, 물질문화적 재부의 발전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생산력의 발전수준, 물질문화적 재부의 발전수준은 사회성격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제도에 의해 고착되고 담보되는 만큼 사회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됩니다.

사회제도는 전 사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의 공고한 체계를 말합니하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노예주의 지배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는 노예제사회로 되고 봉건영주, 지주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회는 봉건사회로 되고 자본가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되는 겁니다.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는 다같이 반동적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며 광범위한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인걸로 해서 반민중적인 사회, 착취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에게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사회는 바로 민중적인 사회,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가 구현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해당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수중에 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당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사회성격은 무엇보다도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장악되어 있느냐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계급의 이익에 걸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 지휘권입니다. 정권을 쥔 계급, 사회적 집단은 자기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의 의사와 이익이 구현되는 사회제도를 세우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권을 쥐지 못한 계급은 사회적으로 예속되고 억압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이 정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규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사회가 자본가계급의 탐욕적인 요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반동적이고 반민중적인 사회로 되는 건 바로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이 국가정권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인거죠. 이와 달리 사회주의사회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민중적인 사회로 되는 건 그들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성격은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의해서도 규정됩니다. 정권이 어느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지만 그것만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정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는 사적 소유형태와 사회적 소유형태가 있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형태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필연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기 때문에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받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규정되게 됩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형태가 지배하는 사회인걸로 해서 반민중적인 착취사회로 되는 거고 사회주의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인걸로 해서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민중적인 사회로 되는 겁니다.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어디까지나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사회제도는 주로 정권을 쥔 계급, 또는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확립됩니다. 비록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을 쥐지 못한 계급은 경제생활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사회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변화가 없는 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어도 사회성격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성격에 대한 주체적 견해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변혁운동가들은 오늘 학습한 내용에 입각해 우리 사회의 성격을 올바로 투시해보고 그에 걸맞게 변혁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옳게 풀어나가야 할줄 압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의강좌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6일